

알코올 중독자 부모를 둔 청소년의 자녀역할과 학교 적응과의 관계에서 부모애착과 교사관심의 조절효과*

Moderating Effects of Parental Attachment and Teacher's Concerns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Roles and School Adjustment
among Children's of Alcoholics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혜련

대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수경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eoul Women's University

Professor : Haeryun Kim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Daejin University

Professor : Soo Kyung Park

◀ 목 차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roles, parental attachment, teacher's concerns and school adjustment among Children's Alcoholics(COAs). Participants were 2,803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Th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hero role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school bonding and academic performance but increased the level of anxiety/depression. Meanwhile, scapegoat and lost children's roles we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school bonding and also increased the level of anxiety/depression. Mascot role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school bonding and academic performance but had no relation with anxiety/depression. Regarding moderating effects, maternal attachment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capegoat role and school bonding while teacher's concerns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hero role and anxiety/depress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capegoat role and anxiety/depression. These findings suggested that practitioners need to consider the contributions of children's roles on school adjustment and moderating effects

Corresponding Author : Soo Kyung Park,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Daejin University, Sundandong San 11-1, Pocheon City, Kyunggi-Do, 487-711, Korea Tel: +82-31-539-1743 Fax: +82-31-539-1740 E-mail: parksk@daejin.ac.kr

* This work was supported by a special research grant from Seoul Women's University (2011)

of maternal attachment or teacher's concerns when intervention programs are developed to improve school adjustment among COAs.

주제어(Key Words) : 알코올중독자녀(COAs), 자녀역할(children's roles), 학교적응(school adjustment), 부모애착(parental attachment), 교사관심(teacher's concerns)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부모의 알코올 중독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미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밝혀졌듯이 알코올 중독자 가정의 자녀(Children's of Alcoholics: COAs)는 일반가정의 자녀(Children's of non-Alcoholics: non-COAs)에 비하여 학업에서의 성취도가 낮으며 학교에 대한 유대감(school bonding)이 약하고, 상대적으로 더 우울하고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김혜련, 정운경, 박수경, 2010; 최윤신, 2008; 최윤정, 2004; Marcus, 1986; Mylant, Ide, Cuevas, & Meehan, 2002; Sher, Walitzer, Wood, & Brent, 1991). 이러한 이유로 COAs는 non-COAs에 비해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고위험 집단으로 간주되어 왔다(Burk & Sher, 1988; Christensend & Bilenberg, 2000). 반면 모든 COAs가 적응상의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연구들도 있다(Sher, 1991; Werner, 1986). 대부분의 COAs는 임상적인 수준에서 볼 때 문제가 없으며, 정상적인 심리사회적 발달을 경험한다는 것이다(Clair & Genest, 1987). 이처럼 COAs에 대한 상반된 연구결과들이 발표되면서 모든 COAs를 부적응문제를 경험하는 동질적 집단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COAs의 개별성에 초점을 두고 COAs 집단내의 변이성(variability), 즉 이질성(heterogeneity)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새롭게 주목받게 되었다(Clair & Genest, 1987; Ellis, Zucker, & Fitzgerald, 1997; Moos & Billings, 1982; Sher, 1991).

선행연구에서 COAs 집단내의 변이성을 설명할 때 중요하게 지적되는 변수 중 하나가 자녀역할(children's roles)이다(Fischer & Wampler, 1994; Scharff, Broida, Conway, & Yue, 2004). 자녀역할은 Black(1982)과 Wegscheider(1981)가 COAs들을 임상세팅에서 관찰하면서 소개한 개념으로, COAs는 영웅이나 희생양, 마스코트, 잊혀진 아이 역할 등의 각각 구분되는 자녀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COAs의 자녀역할과 적응 관계를 분석한 선행 연구결과를 보면, 영웅 역할과 마스코트 역할이 적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반면 희생양 역할과 잊혀진 아이 역할은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Potter & Williams, 1991). 국내 연구에서도 희생양 역할과 잊혀진 아이 역할이 내면화, 외현화 문제와 관계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이상균, 2003).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COAs가 수행하는 자녀역할에 따라 학교적응상의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COAs의 학교적응상의 차이는 COAs의 자녀역할과의 직접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나 교사와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 선행연구결과를 보면, COAs의 학교적응과 부모애착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Cavell, Jones, Runyan, Constantin-Page, & Velasquez, 1993), COAs의 학교적응에서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부모의 알코올 중독 효과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희, 2007; Broussard, 1998; Curran & Chassin, 1996; El-Sheikh & Buckhalt, 2003). 학교적응과 교사관심과의 관계 역시,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attley, 2004; Reddy, Rhodes, & Mulhall, 2003; Rohner, Khaleque, Elias, & Sultana, 2010; Shin & Kim, 2008). 또한 Werner와 Smith(2001)의 18년 종단연구에서, 현재 잘 적응하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 성인자녀(Adult Children of Alcoholics: ACOAs)는 성장기에 좋은 교사와 친한 친구가 있었음을 밝혀 COAs의 적응에서 교사와의 관계가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반면 빈곤가정 청소년이나 COAs의 경우 교사와의 지니나 관계가 학교적응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밝힌 연구들도 있어(남영옥, 김재한, 2003; 박현선, 1998), 조사대상에 따라 관계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COAs의 적응에서 부모애착과 교사와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들을 보면, 부모의 알코올 중독과 청소년 자녀의 적응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역할에 초점을 두었을 뿐 자녀역할과 적응과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모든 COAs가 부모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믿어왔고, 개입의 우선 대상으로 간주해왔다(Burk & Sher, 1988). 그러나 COAs 중에는 잘 적응하는 COAs도 있을 수 있으며, 적응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COAs도 있을 수 있다(El-Guebaly & Offord, 1977, 1979; Sher, 1991). 따라서 구체적인 근거 없이 획일적으로 개입하기 보다는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COAs의 하위집단을 확인하고, 그들의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요인들을 찾아 이를 근거로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상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COAs의 하위집단을 대상으로 그들의 자녀역할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그리고 이 두 변수간의 관계에서 교사의 관심과 부모애착의 조절효과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COAs의 지위에 따라 학교적응도의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 COAs의 자녀역할은 학교적응도와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COAs의 부모애착과 교사관심은 자녀역할과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학교적응의 개념과 차원

일반적으로 학교적응은 성적(Hernandez, 1993; Murphy, O'Farrell, Floyd, & Connors, 1991), 학교분위기(박현선, 1998), 교사와의 관계(Rosenfeld, Richman, & Bowen, 2000; Werner & Smith, 2001), 학교를 좋아하는 특성(박현선, 1998; Hernandez, 1993) 등으로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학교적응에 대해 포괄적인 정의를 하려는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청소년들의 내면화 문제 또는 정서문제를 포함시키기도 한다(Baker & Siryk, 1989; Hamm, et al., 2010; Jiménez, Dekovic, & Hidalgo, 2009). 학교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사들 역시, 학교적응의 지표에 성적, 교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이규미, 2004). 이는 청소년 자신들도 외적으로 나타난 행동상의 문제, 즉 외현화 문제보다는 우울·불안과 같은 내면화 문제가 자신들에게 가장 문제가 된다고 지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하은혜, 이수정, 오경자, 홍강의, 1998), 타당성이 있는 주장으로 보인다. 실제로 외국의 관련연구들에서도 대학생 활 적응과 초기 청소년기의 학교적응을 평가할 때 우울·불안 등의 내면화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Baker & Siryk, 1989; Hamm, et al., 2010; Jiménez et al., 2009). 따라서 청소년의 학교적응의 차원에 전통적으로 포함되었던 부분들 이외에도 내면화 문제를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정확하게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본 연구에서도 우울·불안을 학교적응의 한 차원으로 포함시켰다.

2. COAs의 학교적응과 자녀역할, 부모애착과 교사관심과의 관계

자녀역할은 COAs의 학교적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Fischer & Wampler, 1994; Scharff,

Broida, Conway, & Yue, 2004). Black(1982)과 Wegscheider(1981)의 임상관찰에 의하면, COAs의 자녀역할 중에 영웅 역할은 가정에서 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모범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반면, 희생양 역할은 학교에서 학업에 전념하기 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비행행동을 하는 등 영웅 역할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잊혀진 아이는 학교에서 있는지 없는지, 그 존재 자체가 그리 부각되지 못하고 학업성적도 좋지 않은 한편, 마스코트 역할을 하는 COAs는 학교성적이 중간정도로 나타났다.

한편, COAs의 자녀역할은 학교적응의 하위 차원, 즉 우울·불안과 같은 내면화 문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lack(1982)과 Wegscheider(1981)는 영웅 역할이 지나친 책임감으로 인하여 우울·불안할 가능성이 크며, 잊혀진 아이 또한 외롭고, 무가치하다고 느껴서 내면화 문제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국내에서도 COAs의 희생양 역할과 잊혀진 아이 역할은 내면화 문제와 관계가 있는 반면(이상균, 2003), 마스코트 역할은 주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며(Potter & Williams, 1991), 내재화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상균, 2003).

일반적으로 COAs는 non-COAs에 비하여 부모와의 애착 수준이 낮으며, 학교 교사로부터 관심을 덜 받는다고 지각한다(Johnson & Pandina, 1991). 그러나 이러한 COAs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부모와의 애착이나 학교 교사로부터의 관심은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에 있어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 가정에서 성장한 COAs일지라도 부모 각자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에 따라 COAs의 적응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Jacob, Krahn, & Leonard, 1991). COAs라 하더라도 적어도 부모 중 한 사람과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면,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성장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Werner, 1986). Walker와 Lee(1998)의 연구에서도,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부모중의 한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는 COAs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이 경우에 한 사람의 부모는, 대체로 어머니로 알코올중독이 아니었다. Curran과 Chassin의 연구에서도(1996),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 정도가 심할수록, 알코올 중독자가 아닌 어머니의 부모 역할은 자녀의 적응에 강한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신들이 지각하는 부모와의 애착은 부모의 알코올 중독과 적응과의 관계에서 부모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위험을 완화시키는 조절효과를 보였다(EI-Sheikh & Buckhalt, 2003).

학교 교사와의 관계 역시 청소년의 학교적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제로, 교사와의 관계는 학교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이 있으며(Chong, Huan, Quek, Yeo, & Ang, 2010), 학교와 관련된 정서와 학업능력을 개발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yan & Patrick, 2001). 교사와의 관계가 긍정적일 경우에는 청소년은 문제행동을 거의 보이지 않으며, 친구들과 잘 지내며, 학업에서 성취적이며, 사회적 기술도 발달하게 된다(Davis, 2003). 또한 교사가 학생에게 수용적이면 학생은 학교를 좋아하게 되며(Harrison, Clarke, & Ungerer, 2007), 학생들은 교사가 자신에게 호의적이라고 지각하면, 성적도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Wentzel, 2002). 반면에 교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게 되면, 학교에서 문제행동을 보이게 되며, 공격적이 되거나 철회하게 된다(Shin & Kim, 2008). 또한 여러 연구들에서 교사의 사회적, 정서적 지지는 소년의 심리적 적응과 관련이 있으며(Cattley, 2004; Reddy et al., 2003), 청소년의 우울과 자존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eddy et al., 2003). 특히 주목해야 할 사실은 청소년의 경우, 친구보다는 교사 또는 부모와의 관계가 학교적응과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청소년이 부모와 교사를 모방할수록 학교적응을 잘 하고(Steinberg & Silverberg, 1986), 친구와의 관계는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yan, Stiller, & Lynch, 1994)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시내 중·고등학교·실업고에 재학 중인 학교 청소년이다. 서울시 교육청의 구분에 따라 서울시 25개구를 북동, 북서, 남동, 남서 등의 4개 구역으로 나누어 중학교(남중, 여중, 공학), 고등학교(남고, 여고, 공학), 실업고(남실업고, 여실업고, 공학) 등의 학교 특성을 반영하여, 설문협조가 가능한 중학교 7개교, 일반고 14개교, 실업고 8개교를 추출하였다. 서울지역의 학교를 고루 포함시키기 위해 북동지역은 일반고 3개교, 실업고 2개교와 중학교 1개교, 북서는 일반고 3개교와 실업고 1개교, 중학교 1개교, 남동지역은 일반고 4개교, 실업고 2개교 중학교 1개교, 남서지역은 일반고 4개교, 실업고 3개교, 중학교 4개교를 포함시켰다.

다음 단계에서 학교 측의 도움을 받아 각 학년별로 1개 학급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진은 협조가 가능한 해당 학급의 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학생들이 설문지 작성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설문결과에 대한 익명성 등을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교사 또한

설문조사에 앞서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할 때에 조사의 목적과 내용, 조사결과에 대한 비밀보장, 설문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후 협조가 가능한 대상자에게 배부하였다. 설문조사는 2006년 10월 26일부터 11월 24일 동안에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2,803부 중에서 COAs를 판단하는 스크리닝 도구인 한국판 알코올 중독자 자녀선별척도(Children of Alcoholics Screening Test : CAST-K) 6점 이상인 COAs 776명과 CAST-K 기준으로 0점과 1점을 보인 일반가정 자녀, 즉 non-COAs 1,326명을 포함하여 총 2,102명을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CAST 2, 3, 4, 5점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양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는 만큼 결정적이지 않다는 Kelley 외(2007)의 연구에서 제시한 의견을 수용하여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2. 측정도구

1) CAST-K

부모의 알코올 중독 여부를 알기 위하여 한국판으로 번안한 알코올 중독자 자녀선별척도(Children of Alcoholics Screening Test : CAST-K)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Jones(1983)가 알코올 중독자 부모와 살았거나 살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선별하고 조기개입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발한 CAST(Children of Alcoholics Screening Test)를 김미례 등(1995)이 번역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입증한 척도이다. 또한 김용석(2004)의 연구에서도 알코올중독자 자녀를 선별하는 다른 도구(F-SMAST, M-SMAST)들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동시타당도가 입증된 도구로서, 여러 국내연구 등에 의해서도 사용되었다. CAST-K를 사용한 연구를 보면, 청소년의 30% 이상이 알코올 중독자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정희, 2007; 노충래, 허지인, 2003; 최윤정, 2004; 최윤신, 2008). CAST-K는 3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예'와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예'로 응답할 경우에는 1점, '아니오'라고 응답할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하였다. 30문항 중에서 총 6점 이상을 응답한 참여자는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인 가정의 자녀 즉, COAs 그리고 CAST-K에서 0점과 1점을 보인 참여자는 non-COAs로 설정하였다. CAST-K의 Cronbach's α 는 .937로 나타났다.

2) 자녀역할

자녀역할을 측정하기 위해서 Potter와 Williams(1991)이 개발한 Children's Role Inventory(CRI)를 사용하였다. CRI는 자기보고식 척도로, 각기 15문항, 5점 척도로 4가지-영웅(Hero)역할, 마스코트(Mascot)역할, 잊혀진 아이(Lost child)역할, 희생양(Scapegoat)의 총 60개의 리커트 척도

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자녀역할 문항 점수범위는 15점에서 75점이다. 각 자녀역할 문항의 총점수의 합이 클수록 특정 자녀역할을 수행하는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가지 하위 척도의 Cronbach's α 는 영웅 역할은 .864, 희생양 역할은 .900, 마스코트 역할은 .927, 잊혀진 아이 역할은 .857로 나타났다.

3) 부모와의 애착

부모와의 애착을 측정하기 위하여 Armsden와 Greenberg(1987)가 사용한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IPPA)의 27문항으로 이루어진 수정판을 사용하였다. IPPA는 청소년의 심리적인 안정의 근원으로 부모와 가까운 친구와의 관계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IPPA 중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내용만을 사용하였다. 참여자들에게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애착 정도를 각각 “거의 항상 그렇다”에서 “거의 항상 그렇지 않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애착은 .869, 어머니와의 애착은 .830으로 나타났다.

4) 교사의 관심

자신에 대하여 교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위하여, ‘학교 선생님들이 나에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하였다. ‘그렇다’에 1점, ‘아니다’에 0점을 부여하였다.

5) 학교적응

① 학교유대감

학교 적응에 관한 척도로 Shears 외(2006)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용했던 학교유대감(school bonding)을 측정하였다. 학교유대감은 ‘학교를 좋아합니까?’, ‘학교 선생님을 좋아합니까?’, ‘학교생활은 재미있습니까?’, ‘학교 선생님은 당신을 좋아합니까?’ 문항 등의 총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기까지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가능한 점수는 4점에서 16점 사이에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에 대한 유대감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학교유대감 척도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834로 나타났다.

② 성적

성적을 알아보기 위하여, ‘나의 성적은 반에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하였다. ‘하위권’에 1, ‘중하위권’에 2, ‘중위권’에 3, ‘중상위권’에 4, ‘상위권’에 5점을 부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이 우수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③ 우울·불안

우울·불안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판 청소년 자기행동평가척도(K-YSR) 중 우울과 불안에 해당하는 6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현재나 지난 6개월 내에 자기 자신이 어떤 행동을 어느 정도 하였는지 해당하는 칸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해당하는 행동에 ‘그렇지 않다’에 0, ‘가끔 그렇다’에 1, ‘늘 그렇다’에 2점을 부여하였다. 점수가 높을 수록 우울과 불안 수준이 높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851로 나타났다.

6) 인구학적 특성 변수

학교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참여자의 성(gender)과 학년, 주관적인 경제적 상태 등은 모든 회귀분석 방정식(regression equations)에서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성에서 남자는 0, 여자는 1의 값을 부여하였다. 학년은 중1에서 고3까지이다. 주관적인 경제적 상태는 5단계로 구분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경제수준을 높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자료분석방법

통계분석방법으로는 COAs 지위에 따른 인구학적 특성(성별, 학년, 가정경제상태)을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chi-square analysis)을 하였다. 그리고 COAs 지위에 따른 주요변수(학교적응, 자녀역할, 부모와의 애착과 교사의 관심)의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두 집단 평균분석(t-test)를 실시하였으며, 자녀역할과 학교적응의 관계는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통해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자녀역할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부적 관계를 보인 자녀역할 유형만을 대상으로, 자녀역할과 학교적응과의 관계에서 부모애착과 교사관심의 조절효과 분석을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COAs 지위에 따른 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의 참여자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이다. 참여자가 COAs인지 아닌지 COAs 지위를 알기 위하여, CAST-K 척도를 사용하였다.

많은 연구에서 CAST-K 점수의 6점 이상을 COAs로 보며, 5점 이하는 non-COAs로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non-COAs 집단을, CAST-K 점수의 0과 1에 해당되는 집단으로 정의하였다. 그 이유는 CAST 점수의 2, 3, 4, 5점은 결정적이지 않다는 Kelley 외(2007)의 의견을 수용하였기 때문

〈표 1〉 COAs 지위에 따른 인구학적 특성

	non-COAs	COAs	χ^2
	CAST-K ≤ 1 %(n)	CAST-K ≥ 6 %(n)	
성별			
남학생	64.8 (859)	50.1(389)	43.570***
여학생	35.2(467)	49.9(387)	
계	100.0(1326)	100.0(776)	
학년			
중1	8.8(116)	6.3(49)	n.s.
중2	9.6(127)	8.9(69)	
중3	10.7(142)	9.8(76)	
고1	29.3(388)	29.3(227)	
고2	23.1(306)	25.1(194)	
고3	18.4(244)	20.5(159)	
계	100.0(1323)	100.0(774)	
가정경제상태			
하	4.6(60)	1.6(89)	112.592***
중하	16.0(209)	28.2(216)	
중	49.8(652)	44.8(343)	
중상	24.4(319)	12.7(97)	
상	5.3(70)	2.6(20)	
계	100.0(1310)	100.0(765)	

주. n.s. = not significant
* $p < .05$, ** $p < .01$, *** $p < .001$

이다. 실제로 CAST 점수의 2, 3, 4, 5점에 해당하는 집단을 하위임상 집단이라고 엄격하게 정의하여, COAs와 non-COAs와는 다른 한 범주로 설정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김혜련, 전선영, 김정희, 2006; Kelley, Cash, Grant, Miles, & Santos, 2004; Mintz, Kashubeck, & Tracy, 1995). 본 연구에서의 COAs는 776명(남학생 389명, 여학생 387명), non-COAs는 1,326명(남학생 859명, 여학생 467명)으로 나타났다.

〈표 1〉는 COAs 지위에 따른 인구학적 특성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COAs 집단은 non-COAs에 비해 여학생의 비율이 높았고, 자신의 가정 경제상태가 좋지 않다고 인식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학년 차이는 없었다.

2. COAs 지위에 따른 주요 변수들에 대한 기술 분석

〈표 2〉에서는 COAs와 non-COAs간에 학교적응, 자녀역할, 부모애착관계, 교사관심 등 주요 변수들 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우선, COAs 지위에 따른 학교적응정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non-COAs 집단의 학교유대감과 성적은 COAs

〈표 2〉 COAs 지위에 따른 주요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와 샘플크기

변수	non-COAs			COAs			t
	M	SD	n	M	SD	n	
학교적응							
학교유대감	2.65	.69	1318	2.52	.71	780	-4.204***
성적	3.11	1.25	1310	2.92	1.31	769	-3.275**
우울·불안	.43	.34	1321	.60	.36	778	12.506***
자녀역할							
영용	2.90	.62	1279	2.87	.63	749	n.s.
희생양	2.27	.67	1288	2.44	.69	754	5.604***
마스코트	3.08	.78	1292	3.04	.78	755	n.s.
잊혀진 아이	2.42	.67	1294	2.60	.64	752	6.144***
조절변수							
아버지와의 애착	3.28	.61	1224	2.99	.62	706	-9.871***
어머니와의 애착	3.87	.61	1258	3.72	.60	722	-5.276***
교사의 관심	.50	.50	1267	.44	.50	749	-2.601**

주. n.s. = not significant
* $p < .05$, ** $p < .01$, *** $p < .001$

〈표 3〉 COAs의 자녀역할과 학교적응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변수	1	2	3	4	5	6	7
1. 영용	-						
2. 희생양	.297**	-					
3. 마스코트	.589**	.427**	-				
4. 잊혀진 아이	.376***	.410**	n.s.	-			
5. 학교유대감	.233**	-.183**	.172**	-.093*	-		
6. 성적	.279***	n.s.	.154**	n.s.	.175**	-	
7. 우울·불안	.082*	.315**	n.s.	.416**	-.201**	n.s.	-

주. n.s. = not significant
* $p < .05$, ** $p < .01$, *** $p < .001$

보다 높았지만 우울·불안 정도는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COAs 지위에 따라 자녀역할 유형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COAs의 경우 non-COAs에 비해 희생양 역할과 잊혀진 아이의 역할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애착 관계와 교사의 관심 역시, COAs보다 non-COAs집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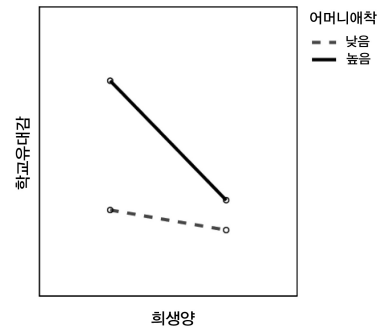
3. COAs의 자녀역할과 학교적응과의 상관관계

〈표 3〉에서는 연구문제 2를 검증하기 위해 COAs만을 대상으로 자녀역할(영웅, 희생양, 마스코트, 잊혀진 아이)과 학교적응(학교유대감, 성적, 우울·불안)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았다. COAs의 자녀역할과 학교적응의 하위차원인 학교유대감, 성적, 우울·불안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영웅 역할은 학교유대감, 성적, 그리고 우울·불안과 정적인 관계를 보였고, 희생양 역할은 학교유대감과는 부적 관계 그리고 우울·불안과는 정적 관계를 보였지만 성적과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마스코트 역할은 학교유대감과 성적과만 정적 관계를 보였지만 우울·불안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잊혀진 아이 역할은 학교유대감과는 부적 관계, 우울·불안과 정적 관계를 보였지만 성적과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4. 부모의 알코올 중독과 자녀의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부모와의 애착과 교사의 관심의 조절효과

〈표 3〉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학교적응에 부적인 관계에 있는 자녀역할을 정리해보면 ① 희생양 역할과 학교유대감과의 부적 관계, ② 잊혀진 아이 역할과 학교유대감과의 부적 관계, ③ 영웅역할과 우울·불안과의 정적 관계, ④ 희생양 역할과 우울·불안과의 정적 관계, ⑤ 잊혀진 아이 역할과 우울·불안과의 정적 관계 등 5가지 유형이다.

다음에서는 본 연구의 세 번째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에서 제시한 자녀역할과 학교적응과의 5가지 관계유형에



〈그림 1〉 희생양 역할과 학교유대감 관계에서 어머니애착의 조절효과

〈표 4〉 자녀역할과 학교유대감의 관계에서 보호요인의 조절효과

구 분	학교유대감(Beta)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Model 6
인구학적 특성						
성별(여 = 1, 남 = 0)	n.s.	n.s.	.080*	n.s.	n.s.	.076*
학년	n.s.	n.s.	n.s.	n.s.	n.s.	n.s.
가정경제상태	.130**	.117**	.089**	.114***	.113**	.078*
자녀역할						
희생양	-.192***	-.131***	-.200***			
잊혀진 아이				n.s.	n.s.	n.s.
조절변수						
아버지 애착(A)	.129***			.169***		
어머니 애착(B)		.208***			.228***	
교사 관심(C)			.411***			.408***
상호작용항						
희생양 x (A)	n.s.					
희생양 x (B)		-.082*				
희생양 x (C)			n.s.			
잊혀진 아이 x (A)				n.s.		
잊혀진 아이 x (B)					n.s.	
잊혀진 아이 x (C)						n.s.
R^2	.090	.107	.240	.065	.087	.195
F	11.004***	13.466***	36.508***	7.627***	10.705***	28.015***

주. n.s.= not significant
* $p < .05$, ** $p < .01$, *** $p < .001$

서 부모와의 애착과 교사의 관심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과정을 구체적으로 보면, 인구학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학교유대감과 우울·불안을 종속변수로 하여 독립변수인 자녀역할유형, 조절변수인 부모애착과 교사관심, 그리고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동시에 투입하여 총 15개의 모델을 구성하였고, 통계분석은 중다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1) COAs의 희생양과 잊혀진 아이 역할 수행과 학교유대감과 관계에서 부모와의 애착과 교사관심의 조절효과

① COAs의 희생양 역할 수행과 학교유대감과 관계에서 부모와의 애착과 교사관심의 조절효과

〈표 4〉는 인구학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COAs의 희생양 역할, 부모와의 애착과 교사관심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우선 Model 1을 보면, COAs는 주관적으로 가정경제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beta = .130$), 희생양 역할 점수가 낮을수록($\beta = -.192$), 아버지와의 애착 정도가 강할수록($\beta = .129$) 학교유대감이 높게 나타났지만, 희생양 역할과 학교유대감에서 아버지와의 애착은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어머니와의 애착관계 조절효과를 분석한 Model 2를 보면, 가정경제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beta = .117$), 희생양 역할 점수가 낮을수록($\beta = -.131$), 어머니와의 애착 정도가 강할수록($\beta = .208$) 학교유대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어머니와의 애착은 희생양 역할과 학교유대감과의 부적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82$).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그림 1〉을 보면, 어머니와의 애착관계가 강한 집단의 경우 약한 집단에 비해 기본적인 학교 유대감은 높지만, 희생양 역할의 증가에 따라 학교유대감이 낮아지는 정도가 훨씬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교사관심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Model 3을 보면, 가정경제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beta = .089$), 희생양 역할 점수가 낮을수록($\beta = -.200$), 교사로부터 관심을 받는다고 인식하면 학교유대감이 높게 나타났지만, 교사의 관심은 희생양 역할과 학교유대감과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COAs의 잊혀진 아이 역할 수행과 학교유대감과 관계에서 부모와의 애착과 교사의 관심 조절효과

Model 4, 5, 6은 인구학적 특성을 통제한 후, 잊혀진 아이 역할과 학교유대감과의 관계에서 아버지 애착, 어머니 애착, 교사관심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세 모델 모두에서 인구학적 특성이 통제된 후 잊혀진 아이 역할은 학교유대감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던 반면, 아버지와 애착($\beta = .169$), 어머니와의 애착($\beta = .228$), 교사관심

($\beta = .408$)은 학교 유대감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잊혀진 아이와 학교유대감과의 관계에서 아버지와의 애착관계, 어머니와의 애착관계, 교사관심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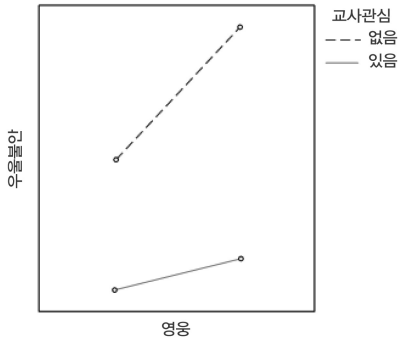
2) COAs의 영웅, 희생양 역할, 잊혀진 아이 역할 수행과 우울·불안과의 관계에서 부모와의 애착과 교사관심의 조절효과

① COAs의 영웅 역할 수행과 우울·불안과의 관계에서 부모와의 애착과 교사관심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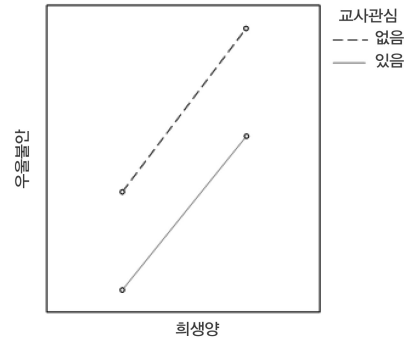
Model 7을 보면, 여자청소년의 경우($\beta = .118$), 주관적으로 가정경제상태가 낮다고 인식할수록($\beta = -.081$), 영웅 역할 점수가 높을수록($\beta = .088$), 아버지와의 애착관계가 약할수록($\beta = -.262$) 우울·불안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영웅 역할과 우울·불안과의 관계에서 아버지 애착정도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Model 8에서도 여자청소년의 경우($\beta = .145$), 주관적으로 가정경제상태가 낮다고 인식할수록($\beta = -.120$), 영웅 역할 점수가 높을수록($\beta = .162$), 어머니와의 애착관계가 약할수록($\beta = -.302$) 우울·불안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영웅 역할과 우울·불안과의 관계에서 어머니애착정도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Model 9를 보면, 여자청소년의 경우($\beta = .145$), 주관적으로 가정경제상태가 낮다고 인식할수록($\beta = -.126$), 영웅 역할 점수가 높을수록($\beta = .123$), 교사로부터 관심을 받지 않는다고 인식하면($\beta = -.171$) 우울·불안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사관심은 영웅 역할과 우울·불안과의 정적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를 보였다($\beta = -.089$). 〈그림 2〉을 보면, 교사의 관심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집단은 교사관심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집단에 비해 COAs의 영웅역할 수행에 따른 우울·불안의 증가 정도가 둔화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② COAs의 희생양 역할 수행과 우울·불안과의 관계에서 부모와의 애착과 교사관심의 조절효과

Model 10을 보면, 여자청소년의 경우($\beta = .155$), 주관적으로 가정경제상태가 낮다고 인식할수록($\beta = -.076$), 희생양 역할 점수가 높을수록($\beta = .306$), 아버지와의 애착관계가 약할수록($\beta = -.182$) 우울·불안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희생양 역할과 우울·불안과의 관계에서 아버지 애착정도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Model 11에서도 여자청소년의 경우($\beta = .189$), 주관적으로 가정경제상태가 낮다고 인식할수록($\beta = -.081$), 희생양 역할 점수 점수가 높을수록($\beta = .287$), 어머니와의 애착관계가 약할수록($\beta = -.209$) 우울·불안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희생양 역할 점수와 우울·불안과의 관계에서 어머니애착정도의 조절효과는



〈그림 2〉 영웅역할과 우울·불안관계에서 교사관심의 조절효과



〈그림 3〉 희생양역할과 우울·불안관계에서 교사관심의 조절효과

〈표 5〉 자녀역할과 우울·불안의 관계에서 보호요인의 조절효과

	우울·불안(Beta)									
	Model 7	Model 8	Model 9	Model 10	Model 11	Model 12	Model 13	Model 14	Model 15	
인구학적 특성										
성별(여 = 1, 남 = 0)	.118**	.145***	.145***	.155***	.189***	.177***	.142***	.154***	.151***	
학년	n.s.	n.s.	n.s.	n.s.	n.s.	n.s.	n.s.	n.s.	n.s.	
가정경제상태	-.081*	-.120**	-.126**	-.076*	-.081*	-.087*	n.s.	n.s.	n.s.	
자녀역할										
영웅	.088*	.162***	.123**							
희생양				.306***	.287***	.316***				
잊혀진 아이							.397***	.385***	.380***	
조절변수										
아버지 애착(A)	-.262			-.182***			-.184***			
어머니 애착(B)		-.302***			-.209***			-.210***		
교사 관심(C)			-.171***			-.139***			-.098**	
상호작용항										
영웅 x (A)	n.s.									
영웅 x (B)		n.s.								
영웅 x (C)			-.089**							
희생양 x (A)				n.s.						
희생양 x (B)					n.s.					
희생양 x (C)						-.080*				
잊혀진 아이 x (A)							n.s.			
잊혀진 아이 x (B)								n.s.		
잊혀진 아이 x (C)									n.s.	
R^2	.099	.130	.082	.177	.179	.161	.242	.244	.201	
F	12.064***	16.742***	10.337***	23.866***	24.640***	22.278***	35.216***	36.406***	29.016	

주. n.s.= not significant

* $p < .05$, ** $p < .01$, *** $p < .001$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Model 12를 보면, 여자청소년의 경우($\beta = .177$), 주관적으로 가정경제상태가 낮다고 인식할수록($\beta = -.087$), 희생양 역할 점수가 높을수록($\beta = .316$), 교사로부터 관심을 받지 않는다고 인식하면($\beta = -.139$) 우울·불안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사관심은 희생양 역할 점수와 우울·불안과의 정적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를 보였다($\beta = -.080$). 〈그림 3〉을 보면, 교사의 관심을 받는 집단은 교사의

관심을 받지 않는 집단에 비해 COAs의 희생양 역할 수행에 따른 우울·불안의 증가 정도가 둔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COAs의 잊혀진 아이 역할 수행과 우울·불안과의 관계에서 부모와의 애착과 교사 관심의 조절효과

Model 13을 보면, 여자청소년의 경우($\beta = .142$), 잊혀진 아이 역할 점수가 높을수록($\beta = .397$), 아버지와의 애착관계가

약할수록($\beta = -.184$) 우울·불안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잊혀진 아이 역할과 우울·불안과의 관계에서 아버지 애착정도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Model 14에서도 여자청소년의 경우($\beta = .154$), 잊혀진 아이 역할 점수 점수가 높을수록($\beta = .385$), 어머니와의 애착관계가 약할수록($\beta = -.210$) 우울·불안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잊혀진 아이 역할점수와 우울·불안과의 관계에서 어머니애착정도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Model 15를 보면, 여자청소년의 경우($\beta = .151$), 잊혀진 아이 역할 점수가 높을수록($\beta = .385$), 교사의 관심이 낮다고 느낄수록($\beta = -.098$) 우울·불안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잊혀진 아이 역할 점수와 우울·불안과의 관계에서 어머니애착정도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COAs 집단 내에서도 학교적응상의 차이와 자녀역할이 관계가 있는 지, 있다면 이 두 변수간의 관계에서 부모와의 애착과 교사의 관심이 조절효과를 보이는 지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주요 연구결과와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COAs 지위에 따라 인구학적 특성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연구문제 1에서 설정된 학교적응 변수를 포함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변수들이 COAs 지위에 따라 주요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COAs 지위와 인구학적 특성간의 관계를 보면, COAs가 non-COAs에 비하여 여학생 비율이 높았으며, 가정의 경제상태가 좋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As 지위와 주요 변수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COAs가 non-COAs에 비해 희생양과 잊혀진 아이의 자녀역할 점수는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영웅과 마스코트 자녀역할 점수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희생양 역할과 잊혀진 아이 역할이 COAs 지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한 이상균(2003)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다음으로 부모와의 애착과 교사의 관심이 COAs 지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COAs는 non-COAs에 비하여 아버지와의 애착, 어머니와의 애착 정도가 낮으며, 교사로부터 자신이 관심을 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As의 지위에 따라 학교적응도의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해 본 결과, COAs는 non-COAs에 비하여 학교유대감 인식 정도가 낮으며,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자신의 성격도 낮은 반면 우울·불안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금까지 COAs가 non-COAs에 비하여 학교적응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

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김혜련 외 2010; 최윤신, 2008; 최윤정, 2004; Marcus, 1986; Mylant et al., 2002; Sher et al., 1991).

다음으로 연구문제 2, COAs는 자녀역할에 따라 학교적응상의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영웅 역할을 많이 수행하는 COAs의 경우 학교유대감이 높거나 성적이 좋은 반면, 우울·불안정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의 영웅 역할이 학교적응과 긍정적인 동시에 부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영웅 역할을 하는 청소년의 경우, 임상문헌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특성을 보이지만 과도한 책임감으로 우울·불안정도도 높다는 점을 지적한 것과 일치한다(Black, 1982; Wegscheider, 1981). 따라서 영웅 역할을 하는 청소년의 경우 학교유대감이나 성적과는 달리 내면적인 면에 취약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면, 희생양 역할과 잊혀진 아이 역할을 많이 하는 경우 학교유대감은 낮고, 우울·불안은 높게 나타나 학교적응이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서 희생양이나 잊혀진 아이 역할은 다양한 문제행동이나 적응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우선적으로 개입할 취약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마스코트 역할은 학교유대감이나 성적과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우울·불안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COAs 중에서 학교적응상의 문제가 없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이는 COAs와 non-COAs 모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마스코트 역할을 하는 청소년만이 자녀역할 유형 중에서 우울·불안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김혜련 외, 2010). 따라서 마스코트 역할을 하는 COAs를 제외하고 자녀역할이 각 유형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학교적응과 부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COAs 내에서도 자녀역할에 따라 개입의 우선순위와 내용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3을 알아보기 위해 학교적응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COAs의 하위집단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애착, 교사의 관심이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희생양 역할과 학교유대감과의 부적 관계에서 어머니와의 애착관계만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성장한 청소년이라고 해도 부모 중 알코올 중독자가 아닌 한 사람과 긍정적인 관계를 갖는다면 알코올 중독의 부정적인 영향에서 보호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Curran & Chassin, 1996; Walker & Lee, 1998; Werner, 1986). 한편 교사관심은 영웅 역할과 우울·불안과의 정적인 관계, 그리고 희생양 역할과 우울·불안과의 정적인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역시, 학생들에 대한 교사관심이 특정 자녀역할을 하는 COAs의 우울·불안에 있어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예상과 달리 교사관심은 희생양 역할이나 잊혀진 아이 역할과 학교유대감과의 부적인 관계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OAs에 대한 교사관심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만큼 크지 못했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학교 청소년의 30% 정도가 COAs인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최운신, 2008; 최운정, 2004), 지금까지 학교 현장이나 교사들의 COAs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해할 만한 결과이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본 연구에서 교사관심을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여 COAs의 교사관심점도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결과에서 아버지와의 애착, 어머니와의 애착, 교사의 관심은 모두 COAs의 학교적응을 높이는 데 직접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절효과 분석결과를 보면, 어머니와의 애착은 COAs의 희생양 역할과 학교유대감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보인 반면 아버지와의 애착관계는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나타내는 COAs에 대한 개입 시 자녀역할 유형과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의 관계특성을 감안하여 개입을 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특히, 희생양 역할을 많이 하는 COAs는 자녀역할 유형 중 어머니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교사의 관심이 동시에 필요한 유일한 대상으로 나타나 우선적인 개입 대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결과, COAs가 수행하는 영웅역할과 희생양 역할과 우울·불안과의 관계에서 교사의 관심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정서적으로 안정적이고 잘 적응하는 청소년은 교사를 긍정적인 자원으로 인식하여 교사와의 관계에서 지지를 보다 많이 끌어낼 수 있다. 그러나 학교적응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COAs의 경우에는 대인관계에서 고립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교사 측의 적극적인 관심이 더 필요한 대상으로 볼 수 있다(Ryan et al., 1994). 따라서 학교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COAs중, 특히 희생양 역할과 영웅역할을 하는 청소년에 대한 개입 시 학교교사의 관심과 참여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다만,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향후 연구에서 교사의 관심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결과에서 통해서 밝혀진 흥미로운 결과 중 하나는 자녀 역할 중 잊혀진 아이 역할을 하는 COAs의 경우 학교유대감 뿐만 아니라 우울·불안과의 관계에서 아버지와의 애착, 어머니와의 애착 그리고 교사의 관심의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잊혀진 역할을 수행하는 COAs는 대체로 외롭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부터 더욱 철회되는 경

향이 있기 때문에 부모와의 애착정도가 낮고 교사로부터의 관심도 적어서 나타난 결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교사들은 잊혀진 아이 역할을 하는 COAs에게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친구를 사귀어 줄 수 있도록 지지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Page & Page, 2000).

한편, 향후 이루어질 관련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알코올 중독이 부모 중 누구인지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한 관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 차후에는 알코올 중독자 부모를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 경우,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자인 경우, 양부모 모두 알코올 중독자인 경우에 따른 COAs의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COAs의 성(gender)에 따라 어떤 양상을 보이는 지 역시, 구체적인 개입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에 학교유대감, 성적 이외에 우울·불안을 포함시켰다. 선행연구들에서도 우울·불안을 학교적응의 한 차원으로 다루고 있다(Baker & Siryk, 1989; Hamm, et al., 2010; Jiménez et al., 2009).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불안은 청소년의 대표적인 심리적 적응으로 간주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처럼 자녀역할을 연속변수로 간주하여 분석할 경우 COAs는 4가지 자녀역할 유형 중 1가지 이상을 갖게 된다(Black, 1981) 그러나 자녀역할 4가지 하위 척도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하위척도를 개인의 자녀역할로 간주하는 연구도 있다(Fischer & Wampler, 1994). 따라서 이러한 방법으로 자녀역할을 유형화하여 관련 변인들을 비교분석한다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김미례, 장환일, 김경빈(1995). 한국어판 알코올 중독자 자녀 선별검사(The Korean Version of the Children of the Children of Alcoholics Screening Test: CAST-K)의 개발: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신경정신의학**, 34(4), 1182-1193.
- 김용석(2004). 부모의 음주문제를 선별하는 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한국어판 Short Michigan Alcoholism Screening Test for Fathers and Mothers의 평가. **한국사회복지학**, 56(3), 37-59.
- 김정희(2007). 부모의 알코올 중독과 대학생 자녀의 대학생 활적응. **한국가족복지학**, 21, 103-138.

- 김혜련, 전선영, 김정희(2006). 사회복지학 전공 여대생 ACOAs 지위에 따른 음주문제와 식이장애. **한국가족복지학**, 17, 29-56.
- 김혜련, 정윤경, 박수경(2010). 부모의 알코올 중독 여부에 따른 자녀역할과 청소년 자녀의 내면화 문제와의 관계.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5, 267-294.
- 남영옥, 김재한 (2003). 알코올 중독자를 부모로 둔 청소년 자녀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학교적응유연성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0(1), 199-221.
- 노충래, 허지인(2004). 알코올 중독자 자녀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16, 99-133.
- 박현선(1998). 빈곤청소년의 학교 적응유연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규미(2004). 중·고등학교 교사가 지각한 학교부적응 행동 지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2), 227-241.
- 이상균(2003). 알코올 중독자 가정 자녀의 역할유형과 심리 사회적 문제. **한국아동복지학**, 16, 195-224.
- 최운신(2008). 부모의 문제음주가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족기능과 자녀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윤정(2004). 아버지의 문제음주와 청소년 자녀의 적응 - 부모역할과 부모와의 애착의 매개역할.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하은혜, 이수정, 오경자, 홍강의(1998). 문제행동에 대한 청소년 자신과 부모 평가간의 관계: K-CBCL과 YSR의 하위요인 구조비교. **소아·청소년정신의학**, 9(1), 3-12.
- Alford, K. M.(1998). Family Roles, Alcoholism, and Family Dysfunction.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20, 250-260.
- Armsden, G. C., & Greenberg, M. T.(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8-454.
- Baker, R. W., & Siryk, B.(1989).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Manual*. Los Angeles: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 Black, C.(1981). *It will never happen to me*, Denver. Colo: Mac Publishing.
- Broussard, D. B.(1998). *Attachment to Parents as Mediators and/or Moderator of psychosocial Functioning among Young Adults with Alcoholic Father*.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Arizona.
- Burk, J. P., & Sher, K. J.(1988). The "Forgotten Children" Revisited: Neglected Areas of Children of Alcoholics Research. *Clinical Psychology Review* 8, 285-302.
- Cattley, G.(2004). The Impact of Teacher-Parent-Peer Support on Students' Well-Being and Adjustment to the Middle Years of Schooling. *International Journal of Adolescence and Youth* 11, 269-282.
- Cavell, T. A., Jones, D. C., Runyan, R. D., Constantine, L. P., & Velasquez, J. M.(1993). Perceptions of Attachment and the Adjustment of Adolescents With Alcoholic Father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7(2), 204-212.
- Chassin, L., Rogosch, F., & Barrera, M.(1991). Substance Use and Symptomatology among Adolescent Children of Alcoholic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 449-463.
- Chong, W. H., Huan, V. S., Quek, C. L., Yeo, L. S., & Ang, R. P.(2010). Teacher-Student Relationship: The Influence of Teacher Interpersonal Behaviours and Perceived Beliefs about Teachers on the School Adjustment of Low Achieving Students in Asian Middle Schools.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31(3), 312-328.
- Christensen, H. B., & Bilenberg, N.(2000). Behavioral and emotional problems in children of alcoholic mothers and fathers. *European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9, 219-226.
- Clair, D., & Genest, M.(1987). Variables associated with the Adjustment of Offspring of Alcoholic Father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48(4), 345-355.
- Curran, P. J., & Chassin, L.(1996). A Longitudinal Study of Parenting as a Protective Factor for Children of Alcoholic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7, 305-313.
- Davis, H. A.(2003). Conceptualizing the Role and Influence of Student-Teacher Relationships on Children's Social and Cognitive Development. *Educational Psychologist*, 38(4), 207-234.

- El-Guebaly, N., & Offord, D. R.(1977). The Offspring of Alcoholics: A Critical Review.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4, 357-365.
- Ellis, D. A., Zucker R. A., & Fitzgerald, H. E.(1997). The Role of Family Influences in Development and Risk. *Alcohol Health and Research World*, 21, 218-226.
- El-Sheikh, M., & Buckhalt, J. A.(2003). Parental Problem Drinking and Children's Adjustment: Attachment and Family Functioning as Moderators and Mediators of Risk.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7(4), 510-520.
- Fischer, J. L., & Wampler, R. S.(1994). Abusive Drinking in Young Adults: Personality Type and Family Roles as Moderators of Family-Of-Origin Influenc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469-479.
- Hamm, J. V., Farmer, T. W., Robertson, D., Dadisman, K. A., Murray, A., Meece, J. L., et al.(2010). Effects of a Developmentally Based Intervention with Teachers on Native American and White Early Adolescents' Schooling Adjustment in Rural Settings. *The Journal of Experimental Education*, 78, 343-377.
- Harrison, L. J., Clarke, L., & Ungerer, J. A.(2007). Children's Drawings provide a New Perspective on Teacher-Child Relationship Quality and School Adjustment.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2(1), 55-71.
- Hernandez, D. J.(1993). *America's Children: Resources from Family, Government, and the Economy*. New York: Russell Sage.
- Jacob, T., Krahn, G., & Leonard, K.(1991). Parent-Child Interactions in Families with Alcoholic Fathe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9, 176-181.
- Jiménez, L., Dekovic, M., & Hidalgo, V.(2009). Adjustment of school-aged children and adolescents growing up in at-risk families: Relationships between family variables and individual, relational and school adjustment.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1, 654-661
- Johnson, V., & Pandina, R. J.(1991). "Effects of the Family Environment on Adolescent Substance Use, Delinquency, and Coping Styles", *The American Journal of Drug and Alcohol Abuse* 17(1): 71~88.
- Jones, J. W.(1983). The Children of Alcoholics Screening Test: A validity study. *Bulletin of Society of Psychologists in Addictive Behaviors*, 2, 155-163.
- Kelley, M. L., Cash, T. F., Grant, A. R., Miles, D. L., & Santos, M. T.(2004). Parental alcoholism: relationships to adult attachment in college women and men. *Addictive Behaviors*, 29, 1633-1636.
- Kelley, M. L., French, A., Bountress, K., Keefe, H. A., Schroeder, V., Steer, K., et al.(2007). Parentification and Family Responsibility in the Family of Origin of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Addictive Behaviors*, 32, 675-685.
- Marcus, A. M.(1986). Academic Achievemen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of Alcoholic Mother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2(2), 372-376.
- Mintz, L. B., Kashubeck, S., & Tracy, L. S.(1995). Relations among Parental Alcoholism, Eating Disorder, and Substance Abuse in Nonclinical College Woman: Additional Evidence Against the Uniformity Myt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1), 65-70.
- Moos, R. H., & Billings, A. G.(1982). Children of Alcoholics during the Recovery Process: Alcoholic and Matched Control Families. *Addictive Behaviors*, 7, 155-163.
- Murphy, R. T., O' Farrell, T. J., Floyd, F. J., & Connors, G. J.(1991). School Adjustment of Children of Alcoholic Fathers: Comparison to Normal Controls. *Addictive Behaviors*, 16(5), 275-287.
- Mylant, M., Ide, B., Cuevas, E., & Meehan, M.(2002). Adolescent Children of Alcoholics: Vulnerable or Resilient?.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iatric Nurses Association*, 57(8), 57-64.
- Page, R., & Page, T.(2000). *Fostering Emotional Well-being in the Classroo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otter, A. E., & Williams, D.(1991). Development of a Measure Examining Children'S Roles in

- Alcoholic Familie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2(1), 70-77.
- Reddy, R., Rhodes, J. E., & Mulhall, P.(2003). The influence of Teacher Support on Student Adjustment in the Middle School Years: A Latent Growth Curve Stud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5, 119-138.
- Rohner, R. P., Khaleque, A., Elias, M. S., & Sultana, S.(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Teacher and Parental Acceptance, School Conduct, and the Psychological Adjustment of Bangladeshi Adolescents. *Cross-Cultural Research*, 44(3), 239-252
- Rosenfeld, L. B., Richman, J. M., & Bowen, G. L.(2000). Social Support Networks and School Outcomes: the Centrality of the Teacher.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17(3), 205-226.
- Ryan, A. M., & Patrick, H.(2001). The classroom social environment and changes in adolescents' motivation and engagement during middle school.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8, 437-460.
- Ryan, R. M., Stiller, J. D., & Lynch, J. H.(1994). Representations of Relationship to Teachers, Parents, and Friends as Predictors of Academic Motiva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4(2), 226-249.
- Scharff, J. L., Broida, J. P., Conway, K., & Yue, A.(2004). The Interaction of Parental Alcoholism, Adaptation Role and Familial Dysfunction. *Addictive Behaviors*, 29, 575-581.
- Shears, J., Edward, R. W., & Stanley, L. R.(2006). School Bonding and Substance Use in Rural Communities. *Social Work Research*, 30(1), 6-18.
- Sher, K. J.(1991). *Children of Alcoholics: A Critical Appraisal of Theory and Research*.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her, K. J., Walitzer, K. S., Wood, P. K., & Brent, E. E.(1991). Characteristics of Children of Alcoholics: Putative Risk Factors, Substance Use and Abuse, and Psychopatholog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 427-448.
- Shin, Y., & Kim, H. Y.(2008). Peer Victimization in Korean Preschool Children: The Effects of Child Characteristics, Parenting Behaviours and Teacher-Child Relationships.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29, 590-605.
- Steinberg, L., & Silverberg, S. B.(1986). The vicissitudes of autonomy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7(4), 841-851.
- Walker, J. P., & Lee, R. E.(1998). Uncovering strengths of children of alcoholic parents. *Contemporary Family Therapy*, 20(4), 521-538.
- Wegscheider, S.(1981). *Another chance: hope and health for the alcoholic family*. Palo Alto. Calif: Science and Behavior Books. Inc.
- Wentzel, K. R.(2003). Are Effective Teachers Like Good Parents? Teaching Styles and Student Adjustment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3(1), 287-301.
- Werner, E. E.(1986). Resilient Offspring of Alcoholics: A Longitudinal Study from Birth to the Age of 18.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147, 34-40.
- Werner, E. E., & Smith, R. S.(2001). *Journeys From Childhood To Midlife: Risk, Resilience And Recovery*, Cornell University Press, New York, Ny, USA.
- West, M. O., & Prinz, R. J.(1987), Parental Alcoholism and Childhood and Childhood Psychopathology. *Psychological Buletin*, 102, 204-218.

접 수 일 : 2010년 12월 27일

심사시작일 : 2011년 1월 11일

게재확정일 : 2011년 3월 23일